

『삼국유사』의 ‘사(師)’와 일연(一然)의 승려 인식

김희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사전편찬부 전문원, 한국고대사 전공
sillasa@aks.ac.kr

- I. 머리말
 - II. 『삼국유사』의 ‘사(師)’ 용례 분석
 - III. 일연(一然)의 승려 인식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일전에 『삼국유사』 역주 모임에서 탐상 편의 ‘황룡사장육(皇龍寺丈六)’ 부분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 가운데 “寺記云, 「眞平五年甲辰金堂造成, 善德王代 寺初主眞骨歡喜師, 第二主慈藏國統, 次國統惠訓, 次廂律師云」”¹라는 구절에서 환희사와 상률사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다. 사초주(寺初主)인 진골 환희사(歡喜師)와 자장(慈藏) 국통, 국통 혜훈(惠訓) 그리고 상률사(廂律師)가 누구인지도 궁금했으나,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²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사(師)’라는 용어가 찾아지는 바,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사(師)’ 또는 ‘-師’라는 용어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이 논문을 기초(起草)하게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사(師)’ 또는 ‘-師’라는 용례가 다수 찾아진다.³ ‘-師’라는 용례는 사찰에서 고승이나 대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사(師)’라는 용어는 대개 스님으로 지칭하면서 일반 승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명칭으로 이해되어 왔다. 기존 번역에는 이 ‘사(師)’를 대개 ‘사(師)’라고 그대로 기술하거나 또는 스님⁴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
- 1 『삼국유사』 권3, 탐상, 황룡사장육 조.
 - 2 이를 이해하는데 하도겸,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條의 초주 환희사와 원효」, 『한국사학사학보』 31(2015)이 있어서 일정한 참고가 된다.
 - 3 이에 반해 『삼국사기』나 다른 高僧傳 류에서는 개별적으로 ‘師’라는 용어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한편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지닌 史書로서의 성격이 달랐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 4 이병도, 『월문검 역주 삼국유사』(동국문화사, 1969); 이재호, 『삼국유사』(양현각, 1982); 리상호, 『삼국유사』(신서원, 1994). 이들 책에서는 ‘師’를 그대로 師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이회문화사, 2003)와 문경현, 『역주 삼국유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등의 책에서는 ‘師’를 스님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일반 승려를 의미하는 ‘석(釋)⁵, ‘승(僧)⁶, ‘사미(沙彌)⁷, ‘화상(和尚)⁸, ‘사문(沙門)⁹, ‘비구(比丘)¹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아마 ‘사(師)와 대등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그 나뉠 차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삼국유사』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사(師)와 연관이 있는 내용을¹¹ 중심으로 여러 용례를 분석해서 그 의미와 성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師)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지목(指目)한 연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삼국유사』의 ‘석(釋), ‘승(僧), ‘사미(沙彌), ‘화상(和尚)¹², ‘사문(沙門), ‘비구(比丘) 등이 일반 승려를 지칭한 데 반해, ‘사(師)는 어떠한 의미로 부각되어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의 승려 인식에¹³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일연이 지목(指

-
- 5 승려들이 석가모니의 제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姓으로 쓰는 말로, 前秦의 道安(314-385)이 처음 사용(곽철환 편저, 『시공 불교사전』(시공사, 2003), 356쪽)했다고 한다.
 - 6 출가하여 절에서 머리를 깎고 戒를 받은 후 佛道를 닦는 수행자, 사미·사미니·비구·비구니를 통틀어 일컬(곽철환 편저(2003), 위의 책, 407쪽)어 말한다.
 - 7 출가하여 十戒를 받고, 具足戒를 받기 전의 남자 승려(곽철환 편저(2003), 위의 책, 290쪽)를 말한다.
 - 8 수행 기간이 길고 지위나 덕이 높은 승려에 대한 존칭(곽철환 편저(2003), 위의 책, 754쪽)을 말한다.
 - 9 출가하여 삭발하고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자(곽철환 편저(2003), 위의 책, 289쪽)를 말한다.
 - 10 출가하여 具足戒를 받은 남자 승려(곽철환 편저(2003), 위의 책, 270쪽)를 말한다.
 - 11 중국 韓愈의 ‘師說’에서 “古之學者 必有師 師者所以傳道授業解惑也”라고 하여, ‘師’의 중요성과 아울러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전하고 가르치며 풀어주는 것으로 제시한 내용(김성혜, 「삼국시대 사(師)에 관한 연구: ‘박사’ 명칭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0-1(2016), 74쪽)은 ‘師’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참고가 된다.
 - 12 일반적으로 화상(和上, 和尚)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특별히 승관조직의 위계를 보여주는 직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승려를 일컫는 다른 승려 관련 명사와 같은 일반명사로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 13 최근 高僧과 聖師에 대한 연구(명계환, 「인간 일연의 고승 인식: 『삼국유사』 「의해」 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2015); 고영섭, 『삼국유사』의 고승과

目)한 ‘사(師)’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¹⁴이 여러모로 분석되어 나름의 관심이나 관점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당시 국사(國師)였던 일연(一然)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일반 승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성사 이해: 일연의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사연구』 13(2018)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그런데 이들 고승과 성사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차원에서 ‘師’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즉, 고승과 성사에 대한 상대성으로 일반 승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 14 『삼국유사』의 찬자로서 일연의 다양한 인식을 다룬 연구로는,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경희사학』 5(1974);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20(1978); 최상진,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향가인식」, 『경희어문학』 5(1982);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인식」, 『전북사학』 8(1984); 박승길,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카리스마의 이해와 일연의 역사인식」, 『한국전통문화연구』 창간호(1985); 김태식,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고려시대인식」, 『울산사학』 1(1987); 채상식, 「일연(1206-1289)의 사상적 경향」 『한국문화연구』 1(1988); 한정현, 「일연의 신화인식에 관한 연구」, 『종교학연구』 10(1991); 고운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민요인식」, 『연세어문학』 25(1993);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70(2008);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 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0(2009); 김상현, 「일연의 일통삼한 인식」, 『신라문화』 38(2011); 방용철, 「『삼국유사』 소재 도교 관련 기록과 일연의 인식」, 『역사와 경계』 85(2012); 명계환, 「인간 일연의 고승 인식: 『삼국유사』 ‘의해’ 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2015); 홍창우, 「『삼국유사』의 후고구려 인식」, 『역사학연구』 62(2016); 주보돈, 「『삼국유사』를 통해 본 일연의 역사 인식」, 『영남학』 63(2017); 고영섭, 『삼국유사』의 고승과 성사 이해: 일연의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사연구』 13(2018) 등 많은 성과가 제출되어 있다.

II. 『삼국유사』의 ‘사(師)’ 용례 분석

『삼국유사』의 기본 구성은 권1에 왕력(王曆)과 기이(紀異)가, 권2에 기이(紀異)가, 권3에는 흥법(興法)과 탑상(塔像)이, 권4에는 의해(義解)가, 권5에는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편이 기재되어 있다. 각 편 분량은 권1과 2에 적기되어 있는 왕력과 기이 편이 사실상 이 책의 절반에 해당되며, 권3부터 권5까지가 나머지에 해당된다. 권4에는 의해 편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승과 대덕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¹⁵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師)’ 관련 기사는 대개 권5에 모아져 있다. 그 중 신주 편은 세 개의 항목이 밀교(密敎)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명랑신인(明朗神印)’ 조에서는 ‘사(師)’와 연관된 내용이 보인다. 실제로 ‘사(師)’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주, 감통, 피은, 효선 편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의 권4의 의해 편과 그 뒤의 권5의 내용이 확연하게 어느 선에서는 구분이 지워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사(師)’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정한 구획(區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는 ‘사(師)’와 관련된 사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는 표제어로 등장하는 ‘사(師)’와 다른 하나는 내용상에 등장하는 ‘사(師)’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표제어로 등장하는 것이 8개,¹⁶ 내용상에 등장하는 것이 6개 정도이다. 이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일연이 『삼국유사』

15 『삼국유사』에는 삼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승려 250여 명이 등장하는데, 「의해」 편 14조목이 일연의 ‘고승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심(명계환, 인각 일연의 고승 인식: 『삼국유사』 「의해」 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2015), 147 쪽이라는 견해가 있어 참고가 된다.

16 『삼국유사』 권4, 의해 편의 ‘歸竺諸師’에도 ‘師’와 관련된 내용이 찾아지지만, 의해 편이 고승 13인과 거사 1인의 전기가 집약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여기서는 제외시킨다.

를 찬술하면서 ‘사(師)’라는 용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표제어로 등장하는 ‘사(師)’

『삼국유사』에 표제어로서 ‘사(師)’가 등장하는 내용은 기이 편(1), 탑상 편(1), 감통 편(3), 피은 편(2), 효선 편(1) 등 8개가 찾아진다. 이들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1-표제어에 등장하는 ‘사(師)’의 용례

편명	『삼국유사』 용례	비고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忠談
塔像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眞慈(貞慈)
感通	月明師 兜孌歌	月明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	融天
	正秀師 救冰女	正秀
避恩	迎如師	迎如
	念佛師	念佛
孝善	眞定師 孝善雙美	眞定

먼저 기이 편에 등장하는 ‘경덕왕(景德王) 충담사(忠談師) 표훈대덕(表訓大德)’의 충담사¹⁷⁾에 대한 내용을 보자.

가) 왕이 묻기를, “그대는 누구요?”라고 하니, 승려가 대답하기를, “충담(忠談) 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묻기를, “어디서 오시오?”라고 하니, 승려

17 일연이 왜 유독 경덕왕과 승려 두 사람을 함께 묶어 제목으로 만들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연이 틀림없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옳지 않을까 싶다(조범환, 『『삼국유사』 기이 편 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9(2018), 237쪽)라는 견해는 참고가 된다.

가 대답하기를, “소승은 3월 3일[重三]과 9월 9일[重九]에는 남산(南山) 삼화령(三花嶺)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다려 공양하는데, 지금도 차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고 하였다. ……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짐을 위해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노래를 지어주시오”라고 하니, 승려가 즉시 칙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그를 아름답게 여겨 왕사(王師)로 봉(封)하니, 승려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¹⁸

충담사에 대해서 ‘왕이 그를 아름답게 여겨 왕사로 봉(封)하니, 승려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했다는 기사이다. 충담을 왕사로 봉(封)하려고 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충담사에서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¹⁹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탐상 편의 ‘미륵선화(彌勒仙花) 미시랑(未尸郎) 진자사(眞慈師)의 진자사에 대한 내용을 보자.

나) 진자는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를 모아 두루 마을을 다니면서 찾았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화장을 곱게 하고 용모가 수려하였으며 영묘사(靈妙寺) 동북쪽 길가 나무 밑에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다. 진자는 그를 보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분이 미륵선화다”라고 하였다. 이에 다가가서 묻기를, “나의 집은 어디에 있으며, 성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낭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미시(未尸)입니다.

18 『삼국유사』 권2, 기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王佳之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19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一然에 의해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인지의 여부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師’라는 칭호를 일연이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구분하였다고 여겨지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原典이 찾아진다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성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그를 가마에 태우고 들어가서 왕에게 뵈었더니, 왕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²⁰

진자사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及眞智王代有興輪寺僧眞慈一作眞慈也’라고 하여, ‘진지왕대에 흥륜사에는 진자(眞慈) 혹은 정자(貞慈)라고 하는 승려’에 대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이 진자(眞慈)라는 이름에 ‘사(師)’를 붙여 표현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감통 편외 ‘월명사(月明師) 도솔가(兜率歌)’의 월명사에 대한 내용을 보자.

다) 경덕왕 19년 경자 4월삭에 두 해가 함께 나타나 10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인연이 있는 중을 청하여 산화공덕(散花功德)을 행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원전(朝元殿)에 행차하여 인연이 있는 중을 기다렸다. 이때에 월명사(月明師)가 발두둑의 남쪽 길을 가고 있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오게 하여 단을 열고 계문(啓文)을 짓게 하였다. (월)명(사)이 아뢰었다. “신승(臣僧)은 단지 국선의 무리에만 속하여 향가(鄉歌)만 풀 뿐이고 범성(梵聲)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뽑혔으니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다”라고 하였다. 월명사가 이에 도솔가(兜率歌)를 지어서 읊었다.²¹

20 『삼국유사』 권3, 탐상4,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조. “慈奉宸旨會徒衆遍於閭閻問物色求之. 有一小郎子, 斷紅齊具眉彩秀麗, 靈妙寺之東北路傍樹下婆娑而遊. 慈逐之驚曰, 「此弥勒仙花也.」乃就而問曰, 「郎家何在, 願聞芳氏.」郎答曰, 「我名未尸. 兒孩時棄屨俱沒未知何姓.」於是肩輿而入見於王, 王敬愛之奉爲國仙.”

21 『삼국유사』 권5, 감통7, 월명사 도솔가 조.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二日並現挾句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인연이 있는 중’을 기다리는데 이때 월명사가 지나가고, 월명사가 아뢰기를 ‘신승(臣僧)은 단지 국선(國仙)의 무리에만 속하여 향가(鄉歌)만 풀 뿐이고 범성(梵聲)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²² 또한 ‘월명사는 항상 사천왕사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문 앞 큰 길에서 피리를 불면서 지나가면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었다. 그로 인해 그 길을 월명리라고 불렀으며, 월명사는 이로써 이름이 났다’라거나, ‘월명사는 곧 능준대사(能俊大師)의 문인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비록 본문에 ‘사(師)가 부기되어 있지만, 이는 찬자의 삽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월명사의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감통 편 의 ‘융천사(融天師) 혜성가(慧星歌) 진평왕대(眞平王代)’의 융천사에 대한 내용을 보자.

라) 제5 거열랑(居烈郎), 제6 실처랑(實處郎)(돌처랑(突處郎)이라고도 한다), 제7 보동랑(寶同郎)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楓岳)을 유람하려 하였는데,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였다. 낭도들은 이에 괴이하게 여겨 유람하는 것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때 (융)천사가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니 별이 기이하게도 곧 사라졌고, 일본의 병사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반대로 복된 경사가 되었다. 대왕은 매우 기뻐하며,

不滅。日官奏請，「緣僧作散花功德則可穰。」於是潔壇於朝元殿駕幸青陽樓望緣僧。時有月明師行于阡陌時之南路。王使召之命開壇作啓。明奏云。「臣僧但屬於國仙之徒，只解鄉歌不閑聲梵。」王曰，「既卜緣僧雖用鄉歌可也。」明乃作堯率歌賦之。」

- 22 신라 화랑도와 승려와의 관계(조범환, 「신라 화랑도와 승려」, 『서강인문논총』 33(2012))에서 승려가 화랑도의 구성원이 되는 배경이나, 화랑도에서 승려가 사라진 이유 등은 ‘師’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특히, 월명사, 진자사, 범교사 등이 그에 해당된다.

낭도들을 풍악에 유람하게 하였다.²³

여기에는 ‘(용)천사’가 보이고 있다. 대개 용천(融天)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천(天)이라는 그 이름이 그의 역할이나 기능을 시사했다고 볼 때 실존인물의 실명인가 하는 회의²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짧은 기사만 가지고 ‘사(師)’의 의미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내용상 여기에 보이는 용천사의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 감통 편 의 ‘정수사(正秀師) 구빙녀(救氷女)’의 정수사에 대한 내용을 보자.

마) 제40대 애장왕대, 사문(沙門) 정수가 있었는데, 황룡사(皇龍寺)에 머물렀다. 겨울 날 눈이 깊게 쌓이고, 이미 날이 저물었다. 삼랑사(三郎寺)에서부터 돌아오면서 천엄사(天嚴寺) 대문 밖을 지나고 있었는데, 한 거지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은 채로 누워 죽음이 임박해 있었다. 스님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나아가 안으니 조금 있다가 기운을 찾았다. 이에 옷을 벗어 덮어주고, 벗은 채로 본사(本寺)로 달려와서, 거적으로 몸을 덮고 밤을 보냈다. 한밤중에 왕궁의 뜰에 하늘의 소리가 있으니, “황룡사 사문 정수를 마땅히 왕사(王師)로 봉(封)하라” 하였다. 이에 급히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조사하여 상세한 일을 아뢰었다. 왕은 위엄 있는 몸가짐과 차림새를 준비하고, 왕궁 안으로 맞이하여, 책봉하여 국사(國

23 『삼국유사』 권5, 감통7, 용천사 혜성가 조. “第五居烈郎·第六實處郎一作突處郎·第七實同郎等三花之徒欲遊槲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恠即滅, 日本兵還國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24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이회문화사, 2003), 304쪽.

師)로 삼았다.²⁵

사문(沙門) 정수가 있었는데, 황룡사 사문 정수를 마땅히 왕사로 봉(封)하라고 해서, 책봉하여 국사(國師)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정수사에 대해서 ‘사(師)’의 의미를 찾으려면 결과적으로 국사에 책봉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사(師)’를 취할 수도 있으나, 문맥상 사문(沙門) 정수에서 ‘사(師)’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 피은 편이 ‘영여사(迎如師)’의 영여사에 대한 내용을 보자.

바) 실제사(實際寺)의 석(釋) 영여(迎如)는 그 씨족은 알 수 없으나, 덕과 행실이 모두 높았다. 경덕왕(景德王)은 맞이하여 공양(供養)하고자, 사신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영여가 대궐에 가서 의식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니, 왕은 사신을 보내어 귀인을 절까지 전송하게 하였다. [영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숨어버려,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사신은 돌아와서 알리니, 왕이 그것이 신이하여, 국사(國師)로 추봉(追封)하였다. 후에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니, 지금에 이르러 [그 절을] 국사방(國師房)이라 칭한다.²⁶

25 『삼국유사』 권5, 감통7, 정수사구빙녀 조. “第四十哀莊代, 有沙門正秀寓止皇龍寺. 冬日雪深既暮, 自三郎寺還經由天嚴寺門外, 有一乞女產兒凍臥瀕死. 師見而憫之, 就抱良久氣蘇乃脫衣以覆之, 裸走幸寺苫草覆身過夜. 夜半有天唱於王庭曰, 「皇龍寺沙門正秀宜封王師.」 急使人檢之具事升聞. 王備威儀, 迎入大內冊爲國師.”

26 『삼국유사』 권5, 피은8, 영여사 조. “實際寺釋迎如未詳族氏, 德行雙高. 景德王將邀致供養遣使徵之. 如詣內齋罷將還, 王遣使陪送至寺. 入門即隱不知所在. 使來奏, 王異之, 追封國師. 後亦不復現世, 至今稱曰國師房.”

석(釋) 영여(迎如)는 그 씨족은 알 수 없으나, 덕과 행실이 모두 높았으므로, 영여가 대궐에 가서 의식을 마쳤으며, 국사(國師)로 추봉(追封)되었다는 내용이다. 영여사에서 ‘사(師)’의 의미를 찾는다면 국사로 추봉된 부분과 지금에 이르러 국사방이라 칭한 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내용상 추봉과 연관하여 볼 때,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 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 피은 편의 ‘염불사(念佛師)’의 염불사에 대한 내용을 보자.

사) 남산의 동쪽 기슭에, 피리촌(避里村)이 있고, 마을에 절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이 피리사(避里寺)라고 하였다. 절에 이승(異僧)이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항상 미타(彌陀)를 염송하였다. …… 이로써 특이하게 여겨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모두 염불사(念佛師)라 이름하였다. 죽은 후에 흙인형으로 진의(眞儀)를 만들어, 민장사(敏藏寺)에 안치하고, 그 본래 살던 피리사는 이름을 고쳐서 염불사(念佛寺)라 하였다. 절 옆에 또한 절이 있었는데, 이름이 양피(讓避)라 하였는데, 마을로 인하여 이름을 얻었다.²⁷

피리사라는 절에 특이한 승려가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항상 미타(彌陀)를 염송하며, 그 소리가 성 안에까지 들려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모두 염불사(念佛師)라 불렀다는 것이다. 염불사에서 ‘사(師)’의 의미를 찾는다면 ‘특이하게 여겨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27 『삼국유사』 권5, 피은8, 염불사 조. “南山東麓有避里村，村有寺因名避里寺。寺有異僧不言名氏，常念彌陀 …… 以此異之莫不致敬，皆以念佛師為名。死後泥塑眞儀安于敏藏寺中，其本住避里寺改名念佛寺。寺旁亦有寺名讓避，因村得名。”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붙여진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효선 편 의 ‘진정사(眞定師) 효선쌍미(孝善雙美)’의 진정사에 대한 내용을 보자.

아) 법사(法師) 진정(眞定)은 신라인이다. 백의(白衣)였을 때는 졸오(卒伍)에 적을 두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가들지 못하였다. 부(部)의 역(役)을 하고 남는 시간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집 안에 재산을 계산해보니, 오직 다리가 부러진 철술 하나뿐이었다. …… 일찍이 행오(行伍)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의상법사(義湘法師)가 태백산에서 불법을 설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듣고는, 곧 사모하는 뜻이 있었다. …… 진정은 그 뜻을 거둬 여기다가, 밤이 되어 먼 길을 떠났다. 삼일 만에 태백산에 도착하여 의상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어, 이름을 진정(眞定)이라 하였다.²⁸

진정(眞定)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의상법사를 사모하여, 진정이 눈물을 삼키면서 먼 길을 떠나, 삼일 만에 태백산에 도착하여 의상에게 의탁한다는 내용이다. 진정은 의상의 10대 제자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법사(法師) 진정에서의 법사는 의상법사의 내용을 보아도 후대에 붙여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진정에게서 ‘사(師)’의 의미는 그의 이름인 진정에 ‘사(師)’를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28 『삼국유사』 권5, 효선9, 진정사효선쌍미 조. “法師眞定羅人也. 白衣時隸名卒伍, 而家貧不娶. 部役之餘備作受粟以養孀母. 家中計產唯折脚一鐺而已. …… 嘗在行伍間, 聞人說義湘法師在太伯山說法利人, 即有嚮慕之志. …… 速行定飲泣固辭曰, 「弃母出家其亦人子所難忍也. 況其杯漿數日之資盡費而行, 天地其謂我何.」 三辭三勸之. 定重違其志進途霄征. 三日達于太伯山投湘公, 剃染爲弟子, 名曰眞定.”

붙여진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삼국유사』 기이 편 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탑상 편 의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감통 편 의 ‘월명사 도솔가’, 감통 편 의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 감통 편 의 ‘정수사 구빙녀’, 피은 편 의 ‘영여사’, 피은 편 의 ‘염불사’, 효선 편 의 ‘진정사 효선쌍미’ 등에서 ‘사(師)’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들 표제어 가운데 ‘사(師)’를 어미로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자체 『삼국유사』 찬자의 인식, 즉 일반적인 승려와 분별(分別)하여 존경할 만한 승려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표제어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2. 내용상에 등장하는 ‘사(師)’

『삼국유사』에 ‘사(師)’가 내용상에 등장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사(師)’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많이 존재하지만, 논지 전개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켜 보려고 한다.

표2-내용상에 등장하는 ‘사(師)’의 용례

편명	『삼국유사』 용례	비고
塔像	‘皇龍寺丈六’, 歡喜師와 廂律師	歡喜, 廂律
義解	‘寶壤梨木’, 備師虛(一作毗虛)	備虛
神呪	‘密本催邪’, 因惠師	因惠
	‘明朗神印’, 明朗師	明朗
避恩	‘朗智乘雲 普賢樹’, 朗智師	朗智
	‘包山二聖’, 二聖師	二聖

먼저 탑상 편 의 ‘황룡사장육(皇龍寺丈六)’에서 ‘환희사(歡喜師)와 ‘상률사(廂律師)’에 대한 내용을 보자.

가) 불상이 조성된 후에 동축사의 삼존 또한 옮겨와 절 안에 안치하였다. 절의 기록에는 “진평왕 5년 갑진(584년)에 금당이 조성되었고, 선덕왕대 절의 첫 주지(寺初主)는 진골 환희사(歡喜師)였고, 제2주지는 자장(慈藏) 국통이고 그 다음은 국통 혜훈(惠訓), 그 다음은 상률사(廂律師)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병화가 이미 있어서 큰 불상과 두 보살상은 모두 녹아서 사라졌고 작은 석가상은 아직 남아 있다.²⁹

선덕왕대 절의 사초주(寺初主)는 진골 환희사(歡喜師)였고, 제2주지는 자장(慈藏) 국통이고, 그 다음은 국통 혜훈(惠訓), 그 다음은 상률사(廂律師)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환희사(歡喜師)와 상률사(廂律師)에서 ‘사(師)’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환희와 상(률)이라는 인물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2주지가 자장 국통이고 그 다음이 국통 혜훈’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환희사와 상률사 또한 국통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를 원효(元曉)와 의상(義湘)³⁰으로 비정하여 그 의미를 찾으려는 연구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다만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다소 간격이 있어서 환희사와 원효와의 관계 또는 상률사와 의상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 의해 편 의 ‘보양이목(寶壤梨木)’에서 ‘비허사(備虛師[一作毗虛])’에 대한 내용을 보자.

29 『삼국유사』 권3, 탑상4, 황룡사장육 조. “像成後，東竺寺三尊亦移安寺中。寺記云，「眞平五年甲辰金堂造成，善德王代寺初主眞骨歡喜師，第二主慈藏國統，次國統惠訓，次廂律師云。」今兵火已來大像與二菩薩皆融沒，而小釋迦猶存焉。”

30 하도겸,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條의 초주 환희사와 원효」, 『한국사학사학보』 31(2015).

나) 사(師)의 행장은 옛 전승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민간에 이르기를 “석굴사(石峯寺)의 비허사(備虛師)毗虛와 형제가 되는데, 봉성·석굴·운문 세 절은 봉우리를 이어 쪽 늘어져 있어서 서로 왕래하였다”라고 한다. 후대의 사람이 『신라이전(新羅異傳)』을 고쳐 쓰면서 작탑(鵲塔)과 이목(璃目)의 일을 원광의 전기 속에 함부로 기록하였고, 견성(犬城)의 일은 비허전(毗虛傳)에 걸어놓았으니 이미 잘못된 것이다. 또한 『해동승전(海東僧傳)』을 쓴 사람은 그것을 따라 잘못 썼다. 그 때문에 보양은 전(傳)이 없어 후대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르치게 하였으니 무망(誣妄)함을 어찌할 것인가.³¹

보양의 행장은 전(傳)이 없으며, 석굴사(石峯寺)의 비허사(備虛師)와 형제가 되는데, 봉성·석굴·운문 세 절은 봉우리를 이어 쪽 늘어져 있어서 서로 왕래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보양[사(師)]이나 ‘비허사(備虛師)’ 또한 ‘사(師)’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서 ‘사(師)’의 의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내용상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 신주 편 의 ‘밀본최사(密本催邪)’에서 ‘인혜사(因惠師)’에 대한 내용을 보자.

다) 또한 김유신(金庾信)이 일찍이 한 늙은 거사(居士)와 두텁게 교류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때에 공의 친척 수천(秀

31 『삼국유사』 권4, 의해5, 보양이목 조. “師之行狀古傳不載，諺云，「與石峯脩虛師一作毗虛，爲昆弟奉聖·石峯·雲門三寺連峰櫛比交相往還爾。」後人改作新羅異傳，濫記鵲塔璃目之事于圓光傳中，系犬城事於毗虛傳，既謬矣。又作海東僧傳者從而潤文，使寶壤無傳而疑誤後人，誣妄幾何。”

天)이 오랫동안 악질(惡疾)에 걸려 있어서 유신이 거사를 보내 진찰하게 하였다. 마침 수천의 친구 인혜사(因惠師)라는 자가 중악(中岳)에서 와서 방문하고는 거사를 보고 그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 (거)사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자 인혜가 넘어져 허공으로 날아갔는데 높이가 1장 가량이 되었고, 한참 있다가 서서히 아래로 거꾸로 떨어져 머리가 땅에 박혔는데 말뚝을 박은 것처럼 우뚝하였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당겼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거)사는 나가버렸고, 인혜는 거꾸로 박혀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수천이 김유신에게 빼달라고 하여 김유신이 거사를 보내 가서 구하여 풀어주게 하였다. 인혜는 다시는 재주를 팔지 않았다.³²

김유신이 늙은 거사(居士)와 교류하였는데, 마침 수천의 친구 인혜사(因惠師)라는 자가 중악(中岳)에서 와서 방문하고는 거사를 보고 그를 모욕하므로, (거)사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자 인혜가 넘어져 허공으로 날아갔으며, 인혜는 다시는 재주를 팔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혜사(因惠師)는 앞에서 살펴본 ‘사(師)’의 의미와는 다소 상충되는 면이 찾아진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일반 승려와는 다른 용어로 ‘사(師)’를 사용하였을 개연성도 찾아진다. 잠정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도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 신주 편의 ‘명랑신인(明朗神印)’에서 ‘명랑사(明朗師)’에 대한 내용을 보자.

32 『삼국유사』 권5, 신주6, 밀본최사 조. “又金庾信嘗與一老居士交厚，世人不知其何人。于時公之戚秀天久染惡疾，公遣居士診衛。適有秀天之舊名因惠師者自中岳來訪之，見居士而慢侮之曰。…… 士彈指一聲，惠倒迸於空高一丈許，良久徐徐倒下頭卓地屹然如植藕。旁人推挽之不動。士出去，惠猶倒卓達曙。明日秀天使扣於金公，公遣居士往救乃解。因惠不復賣技。”

라) 사(師)의 휘는 명랑(明朗)이고 자는 국육(國育)으로, 신라 사간(沙干) 재량(才良)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남간부인(南澗夫人)인데, 후자는 법승랑(法乘娘)으로 소판(蘇判) 무림(茂林)의 딸 김씨이며 곧 자장의 누이라고 한다. 세 자식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국교(國敎) 대덕(大德), 둘째 아들은 의안(義安) 대덕(大德)이고 사(師)는 그 막내아들이다. 처음 어머니가 청색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 선덕여왕 원년에 당에 들어갔다가 정관(貞觀) 9년 을미(635년)에 귀국하였다.³³

명랑(明朗)은 신라에서 태어나 당에 들어가 도학(道學)을 배웠으며, 휘는 명랑이고 자는 국육으로, 신라 사간 재량의 아들이며, 큰 아들은 국교 대덕, 둘째 아들은 의안 대덕이고 사(師)는 그 막내아들이라는 내용이다. 명랑에게서 ‘사(師)’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름에 부기된 존칭의 ‘사(師)’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피은 편의 ‘낭지승운(朗智乘雲) 보현수(普賢樹)’에서 ‘낭지사(朗智師)’에 대한 내용을 보자.

마) 용삭 연간 초에 사미(沙彌) 지통(智通)이 있었는데, 이량공(伊亮公) 집의 노비였다. 17세에 출가하였는데, 이때에 까마귀가 와서 울며 이르길, “영축산에 가서 낭지(朗智)에게 의탁하여 제자가 되어라” 하였다. …… 마침 길을 가던 한 스님을 만나서 이에 낭지사(朗智師)가 어디에 사는지를 물으니, 스님이 말하길, “어찌 낭지를 묻느냐?” 하니, 지통이 신이한

33 『삼국유사』 권5, 신주6, 명랑신인 조. “師諱明郎，字國育，新羅沙干才良之子。母曰南澗夫人，或云法乘娘，蘇判茂林之子金氏，則慈藏之姝也。三息長曰國敎大德，次曰義安大德，師其季也。初母夢吞青色珠而有娠。善德王元年入唐，貞觀九年乙未來歸。”

까마귀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길, “내가 그 낭지인데, 지금 당 앞에 또한 까마귀가 와서 알리니, 성스러운 아이가 있어 스님에게 의탁하려고 올 것이니, 마땅히 마중 나가 그를 맞이하라 하였다”³⁴

낭지(朗智)는 기이한 승려로 암자에 여러 해 살았는데, 마을에서는 모두 알지 못했고, 사(師)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며, 항상 법화(法華)를 읽어, 이에神通력이 있었는데, 지통이 찾아와 신심을 깨닫고, 지혜가 깨우쳐졌다는 내용이다. 낭지(朗智)에게서 ‘사(師)’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름에 부기된 ‘사(師)’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피은 편의 ‘포산이성(包山二聖)’에서 ‘이성사(二聖師)’에 대한 내용을 보자.

바) (신)라 때 관기(觀機)·도성(道成)이라는 이성사(二聖師)가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으나, 함께 포산(包山)에 은거하였다. 관기의 암자는 남쪽 고개였고, 도성은 북쪽 골에 거처하였다. 서로 10리쯤 떨어져 있었으나, 구름을 헤치고 달을 읊으며, 매일 서로 친하게 지냈다. 도성이 관기를 부르려고 하면, 곧 산 속에 나무가 모두 남쪽을 향해 구부러, 서로 맞이하는 사람 같았다. …… 지금 두 스님으로 그 터를 이름 지었는데, 그 자리가 모두 남아 있다. …… 아홉 성인을 기록하였는데, 남겨진 이야기는 상세하지 않으나, 말하길, “관기(觀機), 도성(道成), 반사(檄師),

34 『삼국유사』 권5, 피은8, 낭지승운 보현수 조. “龍朔初有沙彌智通, 伊亮公之家奴也. 出家年七歲, 時有烏來鳴云, 「靈鷲去投朗智爲弟子.」 …… 遂前行路逢一僧乃問朗智師何所住, 僧曰, 「奚問朗智乎.」 通具陳神鳥之事. 僧莞爾而笑曰, 「我是朗智, 今茲堂前亦有烏來報, 有聖兒投師將至矣, 宜出迎故來迎爾.」

첩사(楸師), 도의(道義), 자양(子陽), 성범(成梵), 금물녀(今勿女), 백우사(白牛師)이다.”³⁵

신라 때 관기(觀機)·도성(道成)이라는 이성사(二聖師)가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으나, 함께 포산(包山)에 은거하면서 매일 서로 친하게 지냈으며, 도성의 뒤를 이어 관기도 세상을 떠났으며, 지금 산 속에서 일찍이 아홉 성인을 기록하였는데, 남겨진 이야기는 상세하지 않으나, 관기, 도성, 반사, 첩사, 도의, 자양, 성범, 금물녀, 백우사가 그들이라는 내용이다. 관기(觀機)·도성(道成)에게서 ‘사(師)’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이름에 부기된 ‘사(師)’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는 공식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삼국유사』 탐상 편 의 ‘황룡사장육’, 의해 편 의 ‘보양이목’, 신주 편 의 ‘밀본최사’, 신주 편 의 ‘명랑신인’, 피은 편 의 ‘낭지승운 보현수’, 피은 편 의 ‘포산이성’ 등에서 ‘사(師)’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들 내용에 등장하는 ‘사(師)’를 어미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자체 『삼국유사』 찬자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내용상에 등장하여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표제어로 등장하는 ‘사(師)’와 내용상에 등장하는 ‘사(師)’의 의미는,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승관조직(僧官組織)과 무관하게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반 승려에 대한

35 『삼국유사』 권5, 피은8, 포산이성 조. “羅時有觀機·道成二聖師，不知何許人同隱包山。鄉去所瑟山乃梵音，此云包也。機庵南嶺，成處北穴。相去十許里，披雲嘯月每相過從。成欲致機，則山中樹木皆向南而俯如相迎者。……今以二師名命其墟，皆有遺趾。……今山中嘗記九聖，遺事則未詳，曰，「觀機·道成·楸師·楸師·道義有栢岩基·子陽·成梵·今勿女·白牛師。」”

존칭으로 ‘사(師)’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보이는 ‘사(師)’의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문제제기는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일연(一然)의 승려 인식

앞장에서 살펴본 ‘사(師)’는 일반적으로 고승과 대덕들에 사용한 국사, 왕사 및 법사, 선사 등에 접미사로 사용된 경우와 ‘사(師)’ 자 자체만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사(師)’ 자 자체만을 사용한 내용은 그 자체 『삼국유사』 찬자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즉, 존경의 의미가 적극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표제어와 내용상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고승과 대덕 이외에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석(釋), 승(僧), 사미(沙彌), 화상(和尚), 사문(沙門), 비구(比丘)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들 용어는 『삼국유사』에서 본래 일반 승려의 명칭으로 사용된 반면, ‘사(師)’는 이와 분별(分別)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승려 일반에 대한 명칭을 선별적으로 찾아 그 용례를 분석하고, 이들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사(師)’와의 비교³⁶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36 물론 ‘師’가 釋이나 僧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釋이나 僧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라 ‘師’를 우선하여 편찬한 것으로 본다.

표3-중종 임신본(정덕본) 『삼국유사』의 승려 분류 및 표기 사례³⁷

卷	편명	高僧	聖師	大師/大德 /長老	法師/和尚	禪師/律師	師/僧 (釋/沙門)
三國遺事卷第一	王曆第一						
	紀異第二			/1/			1/ /
三國遺事卷第二	紀異			2/4/	/1		
三國遺事卷第三	興法第一	1	11		/4		
	塔像第二	2	2	2/ /1	3/3	6/4	3/4/
三國遺事卷第四	義解第五	3	1	/18/1	10/2	1/2	/9/
三國遺事卷第五	神呪第六	2		1/6/	2/	1/	1/1/
	感通第七			2/1/	1/		3/ /2
	避恩第八	1	11	/1/1			4/ /
	孝善第九		2	/1/			1/ /

먼저 석(釋)에 대한 용례를 보자.

- 가) ㉠ 신라 황룡사(皇隆寺) 석(釋) 원광(圓光)의 속성은 박씨이고 본래 삼한에 살았다. [삼한은] 변한·진한·마한으로 원광은 곧 진한 사람이다.³⁸
- ㉡ 석(釋) 보양전(寶壤傳)에는 그의 고향과 씨족을 실지 않았다. 『청도군사적(淸道郡司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복(天福) 8년 계유(癸酉) 정월 모일에 청도군 경계 마을의 심사(審使) 순영(順英)과 대내말(大乃末) 수문(水文) 등의 주첩(柱貼) 공문(公文)에 운문산 선원 장생(長生)은 남쪽은 아니첩(阿尼帖), 동쪽은 가서현(嘉西峴)이라고 했고, 그 사원의 삼강전(三剛典) 주인은 보양화상(寶壤和尚)이고, 원주(院主)는 현회장로(玄會長老), 정좌(貞座)는 현량상좌(玄兩上座), 직세(直歲)는 신원선사

37 고영섭(2018), 앞의 논문, 12-13쪽의 표를 기초로 師 부분에 한정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38 『삼국유사』 권4, 의해, 원광서학 조. “新羅皇隆寺釋圓光俗姓朴氏本住三韓。卞韓·辰韓·馬韓，光卽辰韓人也。”

(信元禪師)라고 하였다.³⁹

의해 편에는 그 앞부분이 대개 석(釋)으로 시작된다. 이를 간단히 언급해 보면, ‘釋良志未詳祖考鄉邑’, ‘釋阿離那一作耶跋摩一作□新羅人也’, ‘釋惠宿沉光於好世郎徒郎’, ‘釋惠空天真公之家傭嫗之子, 小名憂助’, ‘釋眞表完山州今全州牧. 萬頃縣人’, ‘釋勝詮未詳其所自也’, ‘釋心地辰韓第四十一主憲德大王金氏之子也’라고 하여 석(釋)에 이어 인명이 연명되어 있다.⁴⁰

반면, 의해 편은 같은 내용 가운데 자장에 대해서는 ‘大德慈藏金氏, 本辰韓眞骨蘇判 三級爵名茂林之子’라고 하여 대덕으로, 원효에 대해서는 ‘聖師元曉俗姓薛氏. 祖仍皮公亦云赤大公’이라고 하여 성사로, 의상에 대해서는 ‘法師義湘考曰韓信金氏, 年二十九依京師皇福寺落髮’이라고 하여 법사로, 진표에 대해서는 ‘眞表律師全州碧骨郡都那山村大井里人也’라고 하여 율사로, 대현에 대해서는 ‘瑜珈祖大德大賢住南山葺長寺’라고 하여 대덕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는 의해 편은 구성이 대개 두 가지로 나뉘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석(釋)으로 지칭되는 승려는 ‘진표율사(眞表律師)’처럼 그 의미가 상승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그렇지만 자장이나 원효, 의상, 대현처럼 석(釋)과는 다른 의미의 승려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釋) 자체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범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승(僧)에 대한 용례를 보자.

39 『삼국유사』 권4, 의해, 보양이목 조. “釋寶壤傳不載鄉井氏族. 謹按清道郡司籍. 載天福八年癸酉太祖即位第二十六年也. 正月日, 清道郡界里審使順英·大乃末水文等柱貼公文, 雲門山禪院長生南阿尼帖, 東嘉西峴云云, 同戴三剛典主人寶壤和尚, 院主玄會長老, 貞座玄兩上座, 直歲信元禪師.”

40 이외에도 신주 편에는 ‘釋惠通氏族未詳’, 피은 편에는 ‘釋惠現百濟人’, ‘釋永才性滑稽不累於物善鄉歌’, ‘實際寺釋迎如未詳族氏’ 등이 있어 참고가 된다.

나) ㉠ 진지왕대에 흥륜사(興輪寺)에는 진자(眞慈) 貞慈라는 승(僧)이 있었다. [그는] 항상 당주(堂主) 미륵상(彌勒像) 앞에 나아가 서원을 발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우리 대성(大聖)께서는 화랑으로 화하시어 세상에 출현하셔서 제가 항상 거룩하신 모습을 가까이 뵈고 받들어 시중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하였다. 그의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독실해졌다. 어느 날 밤 꿈에 한 승(僧)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웅천(熊川)의 수원사(水源寺)로 가면 미륵선화(彌勒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⁴¹

㉡ 망덕사의 승(僧) 선율(善律)은 보시 받은 돈으로 『육백만야경(六百般若經)』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공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갑자기 명부의 쫓김을 받아서 저승에 이르렀다. 명사(冥司)가 묻기를 “너는 인간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니 선율이 “빈도는 말년에 『대품경(大品經)』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명사가 “너의 수록(壽錄)은 비록 다 되었으나 뛰어난 소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땅히 인간세계로 돌아가 보전을 완성하라”라고 하고 곧 놓아 돌려보냈다.⁴²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다른 기록에서 보이듯이 일반 승려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승(僧)이라는 용례가 찾아진다. 진지왕대에 흥륜사(興輪寺)에는 진자(眞慈)라는 승(僧), 또는 망덕사의 승(僧) 선율(善律)처럼 일반 개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의해 편

41 『삼국유사』 권3, 탑상,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조. “及眞智王代有興輪寺僧眞慈一作眞慈也。每就堂主彌勒像前發原誓言, 「願我大聖化作花郎出現於世, 我常親近眸容奉以□周旋。」其誠懇至禱之情日益彌篤。一夕夢有僧謂曰, 「汝往熊川今公州水源寺得見彌勒仙花也。」慈覺而驚喜, 尋其寺行十日程一步一禮。”

42 『삼국유사』 권5, 감동, 선율환생 조. “望德寺僧善律施錢欲成六百般若, 功未周忽被陰府所追至冥。司問曰, 「汝在人間作何業。」律曰, 「貧道暮年欲成大品經功未就而來。」司曰, 「汝之壽錄雖盡, 勝願未宜復人間畢成寶典, 乃放還。”

및 다른 편의 석(釋)과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승(僧)에서 더 나아가 '사(師)'의 의미를 지닌 형태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 또한 『삼국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僧) 자체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범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미(沙彌)에 대한 용례를 보자.

다) ㉠ 용삭 연간 초에 사미(沙彌) 지통(智通)이 있었는데, 이량공(伊亮公) 집의 노비였다. 17세에 출가하였는데, 이때에 까마귀가 와서 울며 이르길, “영축산에 가서 낭지(朗智)에게 의탁하여 제자가 되어라” 하였다. 지통이 그것을 듣고, 그 산을 찾아 골짜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문득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말하길, “나는 보대사(普大士)로, 너에게 계품(戒品)을 주고자 하여, 그 까닭에 여기에 왔다.” 하였다. 이에 계를 베풀고 마치자 사라졌다. 지통은 신심을 깨닫고, 지혜가 깨우쳐지고 문득 원만해졌다.⁴³

㉡ 왕이 하루는 황룡사, 주(注) 혹은 다른 본(本)에 따르면 화엄사(華嚴寺) 또는 금강사(金剛寺)라고도 하니 아마도 사찰 이름과 불경 이름이 혼동된 것인데, 여기서 석(釋) 지해를 대궐로 불러들여 50일 동안 화엄경을 강연하게 했다. 사미(沙彌) 묘정(妙正)이 매양 금광정(金光井) 가에서 바릿대를 씻었는데, 자라 한 마리가 있어 우물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므로 사미(沙彌)는 매번 남은 밥을 자라에게 주면서 즐거워했다. 법석(法席)이 장차 끝날 무렵에 사미(沙彌)가 자라에게 “내가 너에게 은덕을 베풀기가 오래되었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보답하겠느냐?” 하고 말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나 자라가

43 『삼국유사』 권5, 피은8. 낭지승은 보현수 조. “龍朔初有沙彌智通, 伊亮公之家奴也. 出家年七歲, 時有烏來鳴云, 「靈鷲去投朗智爲弟子.」 通聞之, 尋訪此山來憩於洞中樹下. 忽見異人出曰, 「我是普大士欲授汝戒品, 故來爾.」 因宣戒訖乃隱. 通神心豁爾, 智證頓圓.”

구슬 한 개를 토해 내더니 주려고 하는 듯했다. 사미(沙彌)는 그 구슬을 얻어 허리띠 끝에 매달았다. 그 후로부터 대왕은 사미(沙彌)를 보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내전에 불러 들여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⁴⁴

사미(沙彌) 본래의 의미대로, 사미(沙彌) 지통이 17세에 출가하여 계품(戒品)과 관련하여 보대사(普大士)가 계를 베풀고 마치자 사라졌으며, 지통은 신심을 깨닫고, 지혜가 깨우쳐지고 문득 원만해졌다거나, 또는 사미(沙彌) 묘정(妙正)이 매양 금광정(金光井) 가에서 바릿대를 씻었으며, 사미(沙彌)는 자라에게 구슬을 얻어 허리띠 끝에 매달았으며, 대왕은 사미(沙彌)를 보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내전에 불러들여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굴산조사(崛山祖師) 범일(梵日)이 태화(太和) 연간에 당에 들어가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에 이르렀는데, 왼쪽 귀가 떨어진 한 사미(沙彌)가 여러 중의 말석에 앉았다거나, 원효가 반고사(幡高寺)에 머무를 때, 계(僞)를 지어 이르길, “서쪽 골짜기의 사미(沙彌)는 머리를 조아려 예를 표하고, 동악(東岳)의 상덕(上德)은 높은 바위 앞에 작은 티끌 붙어 영축산에 보태고, 작은 물방울을 날려서 용이 사는 연못에 던집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찾아진다. 이 또한 『삼국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미(沙彌) 자체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범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화상(和尚)에 대한 용례를 보자.

44 『삼국유사』 권2, 기이2, 원성대왕 조. “王一日請皇龍寺, 注或本云華嚴寺又金剛寺香, 蓋以寺名經名光混之也, 釋智海入內稱華嚴經五句. 沙彌妙正每洗鉢於金光井 因大賢法師得名. 邊, 有一龜浮沉井中, 沙彌每以殘食餽而爲戲. 席將罷沙彌謂龜曰, 「吾德汝日久, 何以報之.」 隔數日, 龜吐一小珠如欲贈遺. 沙彌得其珠繫於帶端. 自後大王見沙彌愛重, 邀致內殿不離左右.”

라) ㉠ 그때 보덕화상(普德和尚)은 반룡사(盤龍寺)에 있으면서 좌도(左道)가 정(正)에 맞서면 국운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하여 여러 차례 [왕에게] 간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그는] 신통력으로 방장(方丈)을 날려 남쪽의 완산주(完山州) 고대산(孤大山)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곧 영휘(永徽) 원년 경술(庚戌) 6월이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였다.⁴⁵

㉡ 사(師)에게는 11명의 고명한 제자가 있었다. 무상화상(無上和尙)은 제자 김취(金趣) 등과 함께 금동사(金洞寺)를 세웠고, 적멸(寂滅)과 의융(義融) 이사(二師)는 진구사(珍丘寺)를 세웠으며, 지수(智叡)는 대승사(大乘寺)를 세웠고, 일승(一乘)은 심정(心正)·대원(大原) 등과 함께 대원사(大原寺)를 세웠으며, 수정(水淨)은 유마사(維摩寺)를 세웠고, 사대(四大)는 계육(契育) 등과 함께 중대사(中臺寺)를 세웠으며, 개원화상(開原和尚)은 개원사(開原寺)를 세웠고, 명덕(明德)은 연구사(燕口寺)를 세웠다. 개심(開心)과 보명(普明)도 전기가 있는데, 모두 본전과 같다.⁴⁶

㉢ 또 천성(天成) 3년 무자(戊子)에 묵화상(默和尚)이 당나라에 들어가 역시 대장경을 싣고 왔으며, 본조 예종 때 혜조국사(慧照國師)가 조칙을 받들고 서쪽으로 유학 가서 요나라 판본인 대장경 3부를 사 가지고 왔는데, [그] 한 본은 지금 정혜사(定惠寺)에 있다.⁴⁷

45 『삼국유사』 권3, 흥법, 보장봉로 보덕이암 조. “時普德和尚住盤龍寺，憫左道匹正國祚危矣，屢諫不聽。乃以神力飛方丈，南移于完山州今全州也。孤大山而居焉。即永徽元年庚戌六月也。又李傳云，軹封二年丁卯三月三日也。未幾國滅。”

46 『삼국유사』 권3, 흥법, 보장봉로 보덕이암 조. “師有高弟十一人，無上和尙與弟子金趣等創金洞寺，寂滅·義融二師創珍丘寺，智叡創大乘寺，一乘與心正·大原等創大原寺，水淨創維摩寺，四大與契育等創中臺寺，開原和尚創開原寺，明德創燕口寺，開心與普明亦有傳，皆如本傳。”

47 『삼국유사』 권3, 탐상, 전후소장사리 조. “又天成三年戊子，默和尚入唐亦載大藏經來，本朝睿廟時慧照國師奉詔西學，市遼本大藏三部而來，一本今在定惠寺。海印寺有一本，許叅政宅有一本。”

㉔ 다만 화상(和尚)의 장소(章疏)가 뜻은 풍부하나 문장은 간략하여 후인으로 하여금 뜻을 알게 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화상(和尚)의 은밀한 말과 오묘한 뜻을 적어 의기(義記)를 애써 완성하였습니다. 근래에 승진법사(勝詮法師)가 베껴서 고향에 돌아가 그 땅에 전하고자 하니, 청컨대 상인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상세히 검토하여 가르쳐 주시면 다행이옵니다.⁴⁸

보덕화상(普德和尚)은 반룡사(盤龍寺)에 있으면서 국운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하여 여러 차례 왕에게 간했으나 듣지 않았다거나, 무상화상(無上和尙)은 제자 김취(金趣) 등과 함께 금동사(金洞寺)를 세웠고, 개원화상(開原和尚)은 개원사(開原寺)를 세웠고, 묵화상(默和尚)이 당나라에 들어가 역시 대장경을 싣고 왔으며, 화상(和尚)의 장소(章疏)가 뜻은 풍부하나 문장은 간략하여 후인으로 하여금 뜻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화상(和尚)의 은밀한 말과 오묘한 뜻을 적어 의기(義記)를 애써 완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처럼 화상(和尚)이라는 용어가 수행 기간이 길고 지위나 덕이 높은 승려를 지칭하는 의미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지만, 이 또한 『삼국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和尚)의 사례 자체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범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문(沙門)에 대한 용례를 보자.

마) ㉑ 신라본기 제4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19대 눌지왕 때 사문(沙門) 묵호자(墨胡子)가 고려[고구려]로부터 일선군(一善郡)에 이르렀다. [그] 군사(軍士)인 모례(毛禮) 毛祿가 [자기] 집 안에 굴을 파서 [그를] 편히

48 『삼국유사』 권4, 의해5, 의상전교 조. “但以和尚章疏義豐文簡致令後人多難趣入, 是以錄和尚微言妙旨勒成義記. 近因勝詮法師抄寫還鄉傳之彼土, 請上人詳檢臧否幸示箴誨.”

있게 하였다. 그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전해왔다. 군신은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서 사람을 시켜 향을 싸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묻게 하였다.⁴⁹

㉠ 문무왕대에 사문(沙門)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친하여 밤낮으로 약속하여 말하였다. “먼저 극락으로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알려야 한다.” 광덕은 분황사의 서쪽 마을에 은거하며 짚신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으며 처자와 살았고, 엄장은 남악(南岳)에 암자를 짓고 살면서 나무를 불태워 힘써 경작하였다.⁵⁰

㉡ 제40대 애장왕대, 사문(沙門) 정수가 있었는데, 황룡사에 머물렀다. 겨울 날 눈이 깊게 쌓이고, 이미 날이 저물었다. 삼랑사(三郎寺)에서부터 돌아오면서 천엄사(天嚴寺) 대문 밖을 지나고 있었는데, 한 거지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은 채로 누워 죽음이 임박해 있었다. 스님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나아가 안으니 조금 있다가 기운을 찾았다. 이에 옷을 벗어 덮어주고, 벗은 채로 본사(本寺)로 달려와서, 거적으로 몸을 덮고 밤을 보냈다.⁵¹

놀지왕 때 사문(沙門) 묵호자(墨胡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이르렀다거나, 문무왕대에 사문(沙門) 광덕과 엄장이라는 승려가 있었다거나, 사문(沙門) 정수가 있었는데 겨울 날 한 거지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은 채로

49 『삼국유사』 권3, 흥법, 아도기라 조. “新羅本記第四云. 第十九訥祇王時沙門墨胡子自高麗至一善郡. 郡人毛禮或作毛祿. 於家中作堀室安置. 時梁遣使賜衣著香物. 高得相詠史詩云, 梁遣使僧曰元表宣送溟檀及經像. 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齋香遍問國中.”

50 『삼국유사』 권5, 감통, 광덕엄장 조. “文武王代有沙門名廣德·嚴莊. 二人友善日夕約曰. 「先歸安養者須告之.」 德隱居芬皇西里. 或云皇龍寺有西去房, 未知孰是. 蒲鞋爲業挾妻子而居, 莊庵栖南岳大種刀耕.”

51 『삼국유사』 권5, 감통7, 정수사구빙녀 조. “第四十哀莊代, 有沙門正秀寓止皇龍寺. 冬日雪深既暮. 自三郎寺還經由天嚴寺門外, 有一乞女產兒凍臥瀕死. 師見而憫之, 就抱良久氣蘇乃脫衣以覆之, 裸走寺草覆身過夜.”

누워 있어서 옷을 벗어 덮어주고, 벗은 채로 본사(本寺)로 달려와서 밤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는 출가해서 삭발하고 깨닫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승려를 지칭한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문(沙門) 자체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범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비구(比丘)⁵²에 대한 용례를 보자.

- 바) ㉠ 『법화경』을 외우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 비구(比丘)를 청하여 절을 맡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돌을 공양하며 향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산을 적덕산(亦德山)이라고 하며, 혹은 사불산(四佛山)이라고도 한다. 비구(比丘)가 죽자 장사지냈더니 무덤 위에서 연(蓮)이 났었다.⁵³
- ㉡ 한 비구(比丘)가 있었는데 외양이 남루하였다. 몸을 움츠리고 뜰에서서 “빈도 또한 재를 보겠습니다”라고 청하였다. 왕이 평상의 끝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장차 재가 끝나려 하니 왕이 그를 희롱하여 말하였다. “어느 곳에 주석하는가?” 중이 비파암(毘琶巖)이라고 하였다. 왕이 “이제 가면 사람들에게 국왕이 친히 공양하는 재에 참석했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 승(僧)이 웃으면서 “폐하도 역시 사람들에게 진신 석가를 공양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⁵⁴

『법화경』을 외우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 비구(比丘)를 청하여 절을 맡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돌을 공양하며 향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거나,

52 비구(比丘)에 대한 용례도 찾아진다. 『삼국유사』 권5, 감통, 진신수공 조에 ‘眞平王朝有比丘尼名智惠多賢行’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비구에 한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53 『삼국유사』 권3, 탑상,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조. “請比丘亡名誦蓮經者主寺, 洒掃供石香火不廢. 号曰亦德山, 或曰四佛山. 比丘卒既葬, 塚上生蓮.”

54 『삼국유사』 권5, 감통, 진신수공 조. “有一比丘儀彩踈陋. 局末立於庭請曰, 「貧道亦望齋。」王許赴床抄. 將罷王戲調之曰, 「住錫何所,」僧曰毘琶巖. 王曰, 「此去莫向人言赴國王親供之齋。」僧笑答曰, 「陛下亦莫與人言供養眞身釋迦。」”

한 비구(比丘)가 있었는데 외양이 비록 남루하였으나, 몸을 솟구쳐 하늘에 떠서 남쪽을 향해 갔으며, 왕이 놀라고 부끄럽게 여겨 동쪽 산으로 달려 올라가 그 방향을 향해 멀리서 예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찾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여기에 보이는 내용의 비구(比丘)는 출가해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활동하던 일반 승려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구(比丘) 자체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범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삼국유사』에는 고승과 대덕 이외에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석(釋), 승(僧), 사미(沙彌), 화상(和尚), 사문(沙門), 비구(比丘)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들 용어를 『삼국유사』에서 선별적으로 찾아 그 용례를 분석해 본 결과 본래의 의미대로 승려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장에서 살펴본 ‘사(師)’의 의미가 공식적인 칭호는 아니지만,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釋, 僧, 沙彌, 和尚, 沙門, 比丘 등의 용어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一然)의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사(師)’에 대한 다양한 용례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의 찬자인 일연이 상정한 승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師)’에 대한 다양한 용례 분석과,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석(釋), 승(僧), 사미(沙彌), 화상(和尚), 사문(沙門), 비구(比丘) 등을

선정하여 이들 용례를 선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삼국유사』에는 이들 용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런 사례들을 전수조사(全數調査)할 수 없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추후 기회가 되면 더 보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사(師)’에 주목하여 그 용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이 책의 찬자인 일연(一然)의 승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師)’에 대해서는 국사나 왕사, 그리고 법사나 선사 등 고승이나 대덕 등 승관조직(僧官組織)의 직책에 따른 ‘師’로 이해하거나, 반면 이들 직책 이외에 별도로 사용된 ‘사(師)’자는 단순히 승려 또는 스님 정도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사(師)’자는 특별한 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들 용례를 찾아서 분석해 본 결과 이 ‘사(師)’는 고승과 대덕들에 대한 표현과는 달리 일반 승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승려를 대상으로 존칭의 의미를 적극 반영하여 표현한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삼국유사』가 일연(一然)의 사찬서(私撰書)로서 나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삼국의 역사를 기술한 측면도 있지만, 불자(佛者)로서 불교를 현창하려는 목적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고승이나 대덕 등 이미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던 승려들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연(一然) 스스로 존경할 만한 승려들에게 특별히 ‘사(師)’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그들의 공적을 나름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예들이 찾아지고 있는데, 석(釋), 승(僧), 사미(沙彌), 화상(和尚), 사문(沙門), 비구(比丘)

등이 그것이다. 이들 용례를 선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앞에서 살펴본 ‘사(師)’와는 일정한 간극(間隙)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연(一然)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사(師)’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유는 일반 승려와는 다른 존경받을 만한 승려들에게 특별히 존칭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 『삼국유사』 안에서 일연(一然)이 나름 승려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표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사(師)’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연(一然)의 승려에 대한 분별(分別) 인식이 각별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三國遺事』.

『三國史記』.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3.

2. 단행본

곽철환 편저,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리상호, 『삼국유사』. 신서원, 1994.

문경현, 『역주 삼국유사』.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이병도, 『원문검역주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1969.

이재호, 『삼국유사』. 양현각, 1982.

3. 논문

고영섭, 「『삼국유사』의 고승과 성사 이해: 일연의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사연구』 13, 2018, 4-50쪽.

고운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민요인식」. 『연세어문학』 25, 1993, 135-155쪽.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0, 2009, 37-60쪽.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20, 1978, 19-60쪽.

_____, 「일연의 일통삼한 인식」. 『신라문화』 38, 2011, 223-249쪽.

김성혜, 「삼국시대 사(師)에 관한 연구: '박사' 명칭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0-1, 2016, 73-99쪽.

김태식,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고려시대인식」. 『울산사학』 1, 1987, 21-43쪽.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경희사학』 5, 1974, 77-96쪽.

명계환, 「인간 일연의 고승 인식: 『삼국유사』 「의해」 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144-175쪽.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70, 2008, 143-170쪽.

- 박승길,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카리스마의 이해와 일연의 역사인식」. 『한국전통문화연구』 1, 1985, 27-53쪽.
- 방용철, 「『삼국유사』 소재 도교 관련 기록과 일연의 인식」. 『역사와 경계』 85, 2012, 95-124쪽.
-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인식」. 『전북사학』 8, 1984, 1-16쪽.
- 조범환, 「신라 화랑도와 승려」. 『서강인문논총』 33, 2012, 179-214쪽.
- _____, 「『삼국유사』 기이 편 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9, 2018, 233-262쪽.
- 주보돈, 「『삼국유사』를 통해 본 일연의 역사 인식」. 『영남학』 63, 2017, 127-162쪽.
- 채상식, 「일연(1206-1289)의 사상적 경향」. 『한국문화연구』 1, 1988, 31-56쪽.
- 최상진,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향가인식」. 『경희어문학』 5, 1982, 203-206쪽.
- 하도겸,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條의 초주 환희사와 원효」. 『한국사학사학보』 31, 2015, 97-123쪽.
- 하정현, 「일연의 신화인식에 관한 연구」. 『종교학연구』 10, 1991, 89-119쪽.
- 홍창우, 「『삼국유사』의 후고구려 인식」. 『역사학연구』 62, 2016, 89-135쪽.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사(師)’에 대한 다양한 용례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의 찬자인 일연(一然)의 승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사(師)’에 대해서는 국사나 왕사, 그리고 법사나 선사 등 고승이나 대덕의 직책에 따른 칭호로 ‘-師’를 이해해 왔으며, 반면 이들 직책 이외에 별도로 사용된 ‘사(師)’자는 단순히 승려 일반으로 인식해 왔지만, 이에 의문이 있어서 이들 용례를 찾아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사(師)’는 고승과 대덕들에 대한 표현과는 달리 일반 승려 가운데 특별히 존경할 만한 승려의 성격을 적극 반영한 명칭임을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일반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예들이 찾아지는데, 석(釋), 승(僧), 사미(沙彌), 화상(和尚), 사문(沙門), 비구(比丘) 등이 그것이다. 이들 용례를 선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앞에서 살펴본 ‘사(師)’와는 달리 승려 일반에 대한 범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연(一然)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사(師)’라는 용어를 일반 승려와는 다른 존경의 의미를 한껏 담아 사용하였음이 확실해졌다. 이는 한편으로 『삼국유사』 안에서 일연(一然)이 나름 승려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표출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사(師)’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연(一然)의 승려에 대한 분별(分別) 인식이 각별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투고일 2019. 3. 20.

심사일 2019. 4. 8.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삼국유사(三國遺事, Samgukyusa)』, 일연(一然, Illyeon), 사(師, Master), 석(釋, Monk), 승(僧, Monk), 사미(沙彌, Sami), 화상(和尚, Whasang), 사문(沙門, Samun), 비구(比丘, Bigu), 인식(認識, Recognition)

Abstracts

A Study on 'Master(師)' of "SamgukYusa(『三國遺事』)" and Recognition of Buddhist monk of Ilyeon(一然)

Kim, Heui-man

In this article, we tri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priest, who was the compiler of this book,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examples of the 'Master(師)' shown in "SamgukYusa(『三國遺事』)". Until now, as for the 'Master(師)', I have understood that it is a Master(-師)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a High Priests(高僧) and a Dae-duk(大德), such as a National Preceptor(國師) or a King's Preceptor(王師) and a Buddhist priest(法師) or a Zenpriest(禪師).

On the other hand, These questions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Master(師)' is a name that reflects the meaning of respect for the general monk, unlike the expression of High Priests(高僧) and a Dae-duk(大德) etc..

In addition, various examples are found in the term "SamgukYusa(『三國遺事』)" as a term referring to a general monk. As a result of the selective analysis of these example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certain gap from the 'Master(師)' mentioned above. Through this, I could confirm that the term 'Master(師)' was used with the meaning of respect different from the general monk while singing "SamgukYusa(『三國遺事』)".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the first actor in the "Samgukyusa(『三國遺事』)" expressed various perceptions about the monk, and also he could see that the recognition of Buddhist monk was distinguished by actively using 'Master(師)'.

